退溪의 ≪梅花詩帖≫에 대한 연구**

洪 瑀 欽*

● 目 次 ●

Ⅰ. 緖 言
Ⅱ. 梅花의 生態와 退溪 以前의 梅花詩
1) 梅花의 生態
2) 退溪 以前의 梅花詩文
Ⅲ. 退溪 ≪梅花詩帖≫에 쓰여진 漢詩 形式
1) 近體律絶과 古體形式의 使用頻度
2) 押韻 現象
3) 平仄 및 簾
4) 對 仗
Ⅳ. ≪梅花詩帖≫에 나타난 退溪의 梅花觀
1) 梅花의 色態
2) 梅花의 稟性
3) 梅花寒傷에 대한 退溪의 慨歎
Ⅴ. 結 言

Ⅰ. 緖 言

매화가 시의 소재로 쓰여진 것은 ≪詩經≫의 <摽有梅>에서 부터이며[1] 그것의 美的인 상징성을 처음으로 구현한 것은 唐代에 이르러서였다. 宋代에 이르러 梅를 인격화하여 자신의 妻로 假託한 隱者가 나오게 되고 또 사대부 문인화가들이 梅·蘭·菊·竹을 사군자로 부각시킴에 따라 梅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2] 여기서부터 소위 사대부 文人墨客들은 모두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다투

* 영남대 한문교육과 교수
** 영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人文硏究」 제4호(1981) 게재논문
1) ≪詩經, 國風, 召南≫(摽有梅)
2) 鄭昶, ≪中國畵學全史≫(台灣, 中華書局), p.253~254 「…四君子畵, 遂爲時代之産物」

어 찬양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분재와 야생으로 길러 자신의 지조·절개를 存養省察하는 거울로 삼기도 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매화시에 관한 연구는 唐宋 이후의 중국 사대부문인들과 고려 및 조선조 사대부문인들의 미의식과 생활의 자세 및 그 가치관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퇴계 이황(1501~1570)의 ≪梅花詩帖≫은 韓國文學史上 최초의 자작, 자필, 단일소재, 단행본 시집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3] 그리고 초목을 소재로 한 퇴계의 漢詩中 매화시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필로 써서 단행본의 책자로 만들어 두었음을 보면 매화시는 퇴계의 草木花卉詩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퇴계 全體詩 중의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梅花詩帖≫을 연구함으로써 퇴계의 문학적인 특색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연관·인생관의 精彩로운 일면을 아울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논문은 퇴계 이전의 매화시를 조사해 봄으로써 퇴계 매화시의 연원을 규명하도록 하겠으며 나아가서 퇴계가 가장 즐겨했던 소재를 어떤 시형식으로 표현했던가를 조사함으로써 퇴계의 詩形運用과 그 風格을 이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그럼 먼저 매화의 생태와 퇴계 이전의 매화시를 조사해 본 다음 퇴계의 ≪梅花詩帖≫에 쓰여진 시형과 매화관을 살펴 보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Ⅱ. 梅花의 生態와 退溪 以前의 梅花詩

1) 梅花의 生態

宋의 林浦(967~1028)는 梅를 妻로 삼았다고 했으며,[4] 퇴계는 「梅

3) 中國에는 元代의 馮子振과 明本和尙 兩人이 唱和한 <梅花百詠>이란 單行本詩集이 있었다고 한다.

를 酷愛」한다[5]고 했다. 그럼 먼저 지난 날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 아닌 梅를 妻와 같이 사랑하고 아꼈으며 혹애하리만치 그것을 사랑했던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心靈에 투영된 매화의 생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大韓植物圖鑑≫,[6] ≪韓國植物圖鑑≫,[7] ≪原色日本植物圖鑑≫[8] 등에서 밝혀 둔 매화의 생태를 간추려 보면 대략 : 「매화는 대부분 관상용으로 정원에 재배되며 때로는 야생하는 落葉喬木으로 키는 6~10m에 달하며 완전히 자라면 둥치의 직경이 60cm 정도가 된다.

어린 가지는 푸르고 윤기가 나며 자랄수록 목질이 강직해진다. 늙은 木皮는 짙은 갈색, 잎은 互生하며 달걀모양의 타원형이고 잎가는 톱날처럼 생겼다. 잎의 길이는 대략 5~8cm 정도에 가는 털이 있으나 野生梅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생기 발랄하게 싱싱하지 못하고 반은 골아 있고 반은 살아 있는 상태로 지낸다. 꽃은 2·3월 경에 지난해의 잎눈 옆에서 1~3개씩 짜작짜작 겹쳐 잎보다 먼저 平形으로 피며 꽃자루가 없어 앙증스럽고 古拙해 보이나 芳香이 짙다. 花徑은 2.5cm 정도이며 꽃받침은 10片이고 둥글며 꽃잎은 거꾸로 된 달걀모양으로 털이 없어 청결한 느낌을 주는데 수술은 많으나 꽃잎보다 짧고 子房에는 密毛가 나 있다. 梅의 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2~3cm 정도, 보드라운 絨毛로 덮여 있으며 풋과일 때는 녹색이지만 7월에 황색으로 익으며 맛은 매우 시다. 백색의 꽃이 피는 백매화와 담홍색 꽃이 피는 홍매 등이 있는데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 나라 전라·경상·충청·경기·황해도 일대와 태만·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고대부터 매화를 아름다운 식물로 여겨 왔으며 현재는 중화민국의 국화로 추앙되고 있

4) ≪中國文學家大辭典≫(臺灣, 世界書局) 林逋條 ; 「逋不娶無子, 所居植梅畜鶴, 人因謂梅妻鶴子」
5) ≪梅花詩帖≫ <用大成早春見梅韻> : 「我生多癖酷愛梅」
6) 李昌福著, 鄕文社, 1980.
7) 鄭台鉉著, 新知社, 1979.
8) 北村四郎, 村田源共著, 保育社, 昭和 56.

다.」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설된 매화의 생태는 필자가 직접 관찰해 본 매화의 그것에 근사하다. 漆谷 松林寺 동쪽 心遠亭 뜰에 심어져 있는 한 그루 靑萼單葉梅, 퇴계의 도산서원 정원에 있는 매화, 台灣 天祥 谿谷 蔣介石總統別莊에 있는 매화, 그외 몇몇 매화 애호가들이 기르고 있는 盆梅 등은 모두 그러했다. 때로는 얄미울 정도로 앙증스러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半生半枯의 잎을 드리우기도 하며, 앙다바래진 老幹과 굵기가 콩알이나 수제비 정도의 매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화는 어느 한 면도 富贍潤澤하며 濃纖華麗한 인상을 찾아 볼 수는 없다. 野生梅는 생기 발랄하게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숨을 쉬지 않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忍苦의 상태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한다. 그러나 잎이 떨어지면 가지는 한층 발랄하고 청결한 윤기를 띠며 차가운 겨울 냉기속에서 보송보송 꽃망울을 맺는다. 牧丹이나 장미처럼 야단스럽지도 않고 桃花나 櫻花처럼 요염하거나 탐스럽지도 못하다. 그저 가난하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古拙하면서도 淸新함을 잃지 아니하며, 영원한 忍苦 속에서도 소박단아함의 삭막한 미소를 짓는 본성을 지탱해 나갈 뿐이다. 지난 날의 문인묵객들이 매화를 妻로 삼을 정도로 별나게 사랑한 것은 이러한 매화의 생태미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喜·怒·哀·樂이 發現되지 아니한 상태를 中이라 하고, 그것이 발현되었어도 節度를 잃지 아니함을 和라 한다.」[9]를 삶의 이념으로 삼으려고 한 儒家 사대부들은 半生半枯, 古拙淸新, 素樸端雅, 忍苦守節하는 매화야말로 「中·和」를 상징하는 식물로 여겼던 것이다.

「梅는 나의 스승이다.」 <雪梅軒小賦>(李穡), 「나는 생각하건대 梅라는 식물은 淸新한 지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고, 향기로운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할 만하다.」[10] 등은 바로 그러한 정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中和의 지조와 덕을 갖춘 매화를 美의 극치로

9) <中庸>

10) 成三問, ≪梅竹軒先生文集≫ 卷二, <梅隱亭詩引> : 「余惟梅之爲物, 有淸操焉可愛也, 有馨德焉可敬也」

추앙했으며 자신의 지조와 절개와 덕을 存養省察하는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다. 퇴계는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럼 다음은 퇴계가 <梅花詩帖>을 쓰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매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가를 가려내어 퇴계 매화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연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退溪 以前의 梅花詩文

(1) 中國人의 梅花詩文

퇴계 이전의 중국인 가운데 매화를 소재로 하여 시를 쓴 사람도 많고 또한 그들이 남겨 놓은 작품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전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다만 퇴계가 섭렵했으리라 추측되는 몇 사람의 매화시를 들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미감이 퇴계의 매화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① 上古時代의 梅花詩

중국 文學史上에 제일 먼저 나타난 매화시는 앞에서 지적한 ≪詩經≫의 <摽有梅>란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것은 「던지는 매화 열매, 그 열매는 일곱 개」[11]와 같이 아직 미화되지 아니한 천연 그대로의 梅이며 또 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열매를 읊은 것이다. 실용적인 梅實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쳐진 아름다움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남녀가 애정을 표시하는 흥의 매체로 쓰여진 데는 큰 의미가 있었는 듯하다. 혼기가 찬 어느 시골 아가씨가 신랑감이 될만한 청년에게 사랑을 구하는 그 소박하고 애절한 정경, 그 때 던져진 일곱개 세개 나아가서 온 광주리의 매실은 그 아가씨의 청순한 사랑의 숨결이며 열정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3천년전 저 중원 어느 언덕에 던져진 그 사랑의 매실은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 온 대지에 사랑의 梅가 퍼지도

11) 「摽有梅, 其實七兮, 求我庶士, 迨其吉兮.」

록 했던 것이다. 뒷날 梅를 심고 노래하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梅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② 唐代의 梅花詩文

<摽有梅> 이후 唐代에 이르기까지는 三國時代 陸凱와 范曄의 驛梅故事 등이 있으나 매화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사람들의 매화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는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다. 初唐에 들어오면 매화는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매화를 사랑하는 유명인사들이 특별한 지역에 매화를 심어 정취를 붙임으로부터 매화는 일반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과 사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宋璟(663~737)의 <梅花賦>

이 <梅花賦>는 垂拱三年 즉 宋璟이 25세 되던 해 그의 從父를 따라 東川이란 곳에 가서 지은 것인데 매화를 본격적인 문학작품의 소재로 등장시킨 첫째 작품이 아닌가 여겨진다.

> 「나는 여러 달 동안 병을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 때 무너진 담밑을 바라보니 한 떨기 梅花가 우거진 잡목들 틈에 피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탄식해 말하되, 저 매화가 그 자라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찌 뭇 잡목들과 다른 점을 알 수 있겠는가. 그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함은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이로다. 크게 감동되고 詩興이 일어나 그것을 소재로 賦를 짓는다.」[12]

는 <梅花賦>를 짓게 된 동기를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함은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이다. 송경은 매

12) ≪欽定全唐文≫ 卷207, 宋璟, (梅花賦> : 「垂拱三年~感而城. 遂作賦.」

화의 곧은 마음을 사랑하고 배우려고 했던 것이다. 매화의 마음이 곧다고 인식한 것은 매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매화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였다.

매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매화를 괴롭히는 잡목들, 그것들은 햇볕을 가리우고 성장을 억제하는 매화의 위해물들이다. 그러한 장애물과 위해물들 사이에서도 의연히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매화의 자태, 거기서 宋璟은 새로운 삶의 의지와 지혜를 체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梅花賦>에 나타난 宋璟의 매화에 대한 美感을 살펴보면 대략

> [色相] : [氷玉], [瓊], [潔白], [雪], [霜]
> [生態] :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핌」(未綠葉而先葩), 「잡초 속에 숨어 삶」(雜遝於衆草), 「추운 날씨 속에 홀로 핌」(歲寒特妍)
> [臭香] : 「淸香」, 「暗臭」

와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색상은 희고 맑기만하여 냉담한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다. 현란한 靑·紅·黑·黃 그 어느 잡색도 배제한 백색, 그것은 五色을 초극한 순수한 색채이며, 거기다 옥과 같이 투명하여 표리부동함이 없으니 보는 이의 마음을 냉철하고 담담하게 해 주는 것이다. 臭香도 그러하다. 온갖 잡 냄새를 걸러 버린 은은한 향기,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없는 듯도 한 그 맑고 그윽한 향취, 거기다 모든 꽃들이 피지 아니하는 추운 날씨 속, 잡목사이에 숨어 잎도 없는 앙상한 가지에 짜작짜작 꽃망울을 맺는 매화, 그 강인한 인상이 앓아 누운 宋璟의 心靈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매화를 姑射山에서 내려온 신선으로 보기도 하고[13] 본성을 바꾸지 아니하는 절개있는 군자에 짝지우기도 했으며,[14] 憔悴

13) 同上 : 「又如神人來自姑射」, 姑射山은 藐姑射山·≪莊子≫·<逍遙遊> : 「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 若氷雪, 婥約若妻子, 不食五穀, 吸風飮露, 乘雲氣, 御飛龍而遊乎四海之外.」

한 屈原, 傲慢한 東方朔, 예쁜(嫵媚) 卓文君에 비유하기도 하여[15] 百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찬미했던 것이다.[16] 이러한 매화의 아름다움을 宋璟은 문장으로 표현하여 뒷날의 哲人들에게 길이 전하려고 했고[17] 송경의 從父는 宋璟을 향해

「萬木僵仆, 萬木은 아직도 잠들어 있는데,
梅花再吐. 매화만이 제 홀로 피어 있구나.
玉立氷姿 옥을 깎아 세운 듯 차가운 자태,
不易厥素 그 본성 바꾸지 아니하네.
子善體物 너는 잘도잘도 매화를 배워,
永保貞固」 영원히 곧고 굳음 지키려므나.[18]

라고 경계했던 것이다. 뒷날 사람들은 宋璟이 「白色, 淸潔, 透明, 冷淡, 疎蕊, 暗臭, 淸香[19], 속세를 초월하여 숨어 삶,[20] 憔悴 傲慢 嫵媚 貞固…」로 형상화한 매화의 미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 매화를 감상, 음영하며 또 배우고 애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송경의 <梅花賦>는 매화를 소재로 한 詩賦의 始發이라 할 수 있다.

唐 僖宗年間, 鹿門山에 숨어 飮酒作詩로 傲誕한 생활을 누렸던 皮日休가 宋璟의 <梅花賦>에 대해

「내 일찍 宋廣平(璟의 字)의 貞姿勁質과 剛態毅狀을 사모하여, 그 鐵腸石心은 婉媚한 文辭를 표현할 줄 모르는가 의심하였으나 그 가운데 <梅花賦>라는 작품을 보니 淸便富麗하여 南朝의 徐陵과 庾信의 文體를 체

14) 同上 : 「諒不移於本性, 方可儷乎君子之節.」
15) 同上 : 「或憔悴若靈均, 或倚傲若曼倩, 或嫵媚如文君.」
16) 同上 : 「擅美專權, 相彼百花, 誰敢爭先.」
17) 同上 : 「聊染翰以寄懷, 用垂示於來哲.」
18) 同上
19) 同上 : 「淸香潛襲, 疏蕊暗臭.」
20) 同上 : 「至若棲迹隱深, 寓形幽絶, 恥隣市廛, 甘遯巖穴.」

득한 듯 그 爲人과 같지 아니하였다. 뒤에 蘇味道가 <梅花賦>를 지극히 칭찬한 결과 廣平의 이름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廣平의 재주인들 이 賦가 없었다면 蘇味道와 같은 재상이 어찌 그 사람됨을 알아줄 수 있었겠는가.」[21]

와 같이 술회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梅花賦>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梅花賦>는 물론이거니와 <梅花賦>를 평한 이 皮日休의 <桃花賦序>마저 뒷날 매화시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 張九齡(673~740)의 大庾嶺 橫斷路 開設과 植梅

大庾嶺은 중국 五大峻嶺의 하나로 江西省 大庾縣 남쪽과 廣東省 南雄縣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옛날에는 塞上이라 부르기도 했던 곳이다. 漢武帝가 庾勝 형제를 보내어 南越을 정벌하고 그 嶺을 지켰기 때문에 大庾嶺 혹은 庾嶺이라 명명한 역사적 명소이기도 했으나 이 재는 너무 높고 험준하여 남북소통에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재를 넘나드는 관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廣東·江西 지방 사람들의 숙원이었고 온 중국의 근심꺼리였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숙원사업이 唐 玄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玄宗은 이 중요한 大役事를 당대의 대문호 張九齡에게 맡겼고 九齡은 그 일을 완성시켰다. 길이 완성되자 그 길을 내왕하기 위해 각 驛에서 숙식함이 흡사 長安거리와 같았다고 한다.[22] 그야말로 廣東·江西 사람들의 숨통을 터 놓음과 같은 통쾌한 역사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저 유명한 張九齡이 그 大庾嶺 관통로를 개설한 뒤 嶺路邊에 매화를 심어 오고 가는 길손들로 하여금 旅愁를

21) ≪欽定全唐文≫ 卷796, 皮日休, <桃花賦幷序> : 「余賞慕宋廣平之爲相, 貞姿勁質, 剛態毅狀, 疑其鐵腸石心, 不解吐婉媚辭, 然其文而有梅花賦, 淸便富艶得南朝徐庾體, 殊不類其爲人也, 後蘇相公味道得而稱之, 廣平之名遂振.」

22) 同上書 卷291, 張九齡, <開大庾嶺路記> : 「先天二載 …… 如京如坻」

달래게 함이었다. 숙원의 길을 개설했음만도 감동적인 사실인데 大詩人 張九齡이 그 길의 풍류스러운 멋을 살리기 위해 거기에 매화를 심은 일은 그길을 지나는 사람들, 아니 멋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梅香의 낭만이 활짝 날개를 펼치도록 했다.

따라서 그 때 사람들은 大庾嶺을 梅嶺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五代 以後 大庾嶺의 驛路는 점차 황폐해지고 길목의 旅舍들도 드물어 梅嶺이란 이름이 잊혀져 가게 되자 宋 嘉祐年間에 蔡挺이 다시 嶺上에 關門을 열고 「梅關」이란 標石을 세워 江西·廣東의 兩界를 표시하였다.[23] 「大庾嶺에는 매화가 많은데 남쪽 가지의 꽃은 이미 떨어졌으나 북쪽 가지의 꽃은 비로소 피기 시작한다.」(大庾多梅, 南枝旣落, 北枝始開.)<白孔六帖>는 大庾嶺이 얼마나 높고 재를 중심한 남북쪽의 기후차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거기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大庾嶺 梅花의 절묘한 정취를 선명히 묘사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宋璟의 <梅花賦>와 張九齡의 大庾嶺梅는 뒷날 매화를 사랑하고 음미한 많은 韓·中 시인묵객들에게 매화가 지닌 미의 실상을 깨닫도록 한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③ 宋代의 梅花詩

매화의 貞固·潔白·冷淡·强忍 등의 아름다움이 발견된 것은 唐代부터이지마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인들의 愛頌을 받게 된 것은 宋代에 내려와서부터이다.

> 「唐代 사람들이 花卉를 잘 그려 유명한 이는 많지마는 아직 전문적으로 梅花를 그린 사람은 없었다.」[24]
> 「梅·蘭·菊·竹 등 소위 四君子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各各 先後가 다르지마는 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25]

---

23) ≪讀史方輿紀要≫ <江西重險>
24) ≪芥子園畵傳≫ 第八冊, ≪靑在堂畵梅淺設≫, <畵法源流> : 「唐人以寫花卉者多矣. 尙未有專以寫梅稱者.」

와 같은 내용은 詩畵一道라는 입장에서 四君子詩, 특히 그 중에서도 매화시가 宋代에 이르러서 많이 쓰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 중 몇 사람의 매화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林逋의 梅花詩

林逋(967~1027)는 宋初 杭州 錢塘 사람으로 淡白하고 古拙함을 좋아하여 비록 衣食이 부족해도 걱정함이 없었다. 西湖에 있는 孤山에 草盧를 짓고 梅를 아내로, 鶴을 아들로 삼아 20년 동안이나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며 淸談을 즐겼던 隱逸詩人이었다.[26]

「衆芳搖落獨暄妍, 모든 꽃 떨어진 후 너 홀로 피어나서,
占盡風情向小園. 풍류정취 아롱아롱 小園을 향하였네.
疎影橫斜水淸淺 성긴 그림자는 옅맑은 물위에 비끼고,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향기는 황혼에 짙어오네.
霜禽欲下先偸眼 흰 학은 날아 올 때 먼저 너를 바라보고,
粉蝶如知合斷魂 고운 나비 알았다면 일찍 꿈 깨었으리.
幸有微吟可相狎 다행히 읊조리며 너와 함께 즐기오니,
不須檀板共金樽」 檀板이 필요하랴 金樽도 쓸데 없다.

<梅花>

는 그의 매화시다. 「衆芳」·「疎影」·「晴香」등은 宋璟 <梅花賦>의 「衆草」·「疎蕊」·「暗臭」에서 換骨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중 「疎嶺橫斜水淸淺, 暗香浮動月黃昏」은 뒷날 매화를 吟咏한 모든 시인들에게 膾炙된 천하의 명구이며 林逋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한 絶唱이다. 때문에 매화시인 하면 누구나 이 林逋를 으뜸으로 치며, 林逋하면 「疎影, 暗香」이 그를 대신케 했던 것이다.

---

25) 鄭昶著 ≪中國畵學全史≫(臺灣中華局) p.251 : 「蘭 · 竹 · 梅 · 菊 · 所謂四君子畵. 四君者之入畵, 各有先後, 要至宋而始備.」

26) ≪中國文學家大辭典≫(臺灣, 世界書局), 林逋條.

◎ 蘇軾과 陸遊의 梅花詩

蘇軾(1036~1101)은 北宋의 대표문인이며, 陸遊(1125~1210)는 南宋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이들은 양적으로 전대 문인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 蘇軾은 <次韻李公擇梅花>(前集卷11), <梅花二首>(同上), <次韻陳四雪中賞梅>(同上 12), <梅花>(同上 15), <和王晉卿送梅花>, <次韻楊公濟奉議梅花十首>(同上 18), <寄題梅宣義園亭>(同上 18), <再和楊公濟梅花十絶>(同上), <臘梅一首贈趙景貺>(後集 卷2), <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一首>(同上 4), <贈嶺上梅>(同上 7) 등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梅梢春色弄微和　　매화 끝에 봄이 오자 따뜻한 기운,
作意南枝翦刻多」　　어느새 남쪽가지 여기저기 피었더라.
「嶺北霜枝最多思　　庾嶺북쪽 서리가지 생각도 많아,
忍寒留待使君來」　　온 겨울 참고참아 그대 오기 기다리네.
<次韻楊公濟奉義梅花十首>

는 張九齡의 大庾嶺梅 故事에서 정취를 求하고 있으며,

「應笑春風木芍藥　　봄바람속 목작약 우습기도 하고녀,
豊肌弱骨要人醫」　　살쪘으나 뼈가 약해 의원을 부른다네.
<同上>

는 木芍藥의 「豊肌弱骨」을 들어 매화의 「瘦肌强骨」함을 노래하고 있음이다. 그리고 <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는 퇴계가 그 韻字를 빌려 <東湖讀書堂梅花暮春始開>를 쓰기도 했다. 이 두 작품은 韻字가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근사한 데가 많으며 「玉雪爲骨氷爲魂」은 宋璟의 <梅花賦>에서 취한 梅花觀임을 알 수 있다.

陸游는 蘇軾보다 더 많은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 그의 시집인 <劍南詩稿>[27]를 조사해 보면 <梅花絶十首>(卷 10), <雪中尋梅>(卷 11),

<園中賞梅>(卷 12), <庚子正月十八日送梅>外 약 90餘首의 작품을 찾을 수 있다. 「廣平莫倚心如鐵」<梅花絶句>(卷 10), 「莫倚心腸如鐵石」<庚子正月十八日送梅>(卷 12)은 宋璟의 <梅花賦>를 평한 皮日休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可愛南枝愛北枝」<探梅>(卷 16), 「嶺頭羈旅萬里愁」<小園竹間得梅一枝>(卷 24), 「一花兩花春信回, 南枝北枝風日催」<梅花>(卷 38) 등은 張九齡이 심은 庾嶺梅의 風情을 상상하며 읊은 것이고, 「疎影橫斜事已非」(細梅)(卷 27), 「梅花如高人, 妙在一丘壑. 林逋語雖工, 竟未脫壁縛.」<開歲半月湖村梅開>(卷 42) 등은 林逋의 <梅花>가 그 원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正喜巡簷來索笑」<別梅>(卷 17)는 퇴계의 「草堂索笑開愁腸」<梅塢淸香>과 「幽徑疏籬洗世塵, 眼明見此數枝新.」<南園觀梅>(卷 45)은 퇴계의 「眼明天地立孤樹, 一白可洗群芳魂」<節友社梅花暮春始開云云>과 近似함을 보면 퇴계가 陸游의 매화시도 깊이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陸游·范成大·尤袤로 더불어 南宋 4대시인으로 불리는 楊萬里(號 誠齋 1124~1206)도 많은 매화시를 남겼으며 퇴계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었다.

◎ 朱熹의 梅花詩

朱熹는(1130~1200)는 성리학의 집대성자로 유명하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업적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四君子를 소재로 한 시도 상당수 남기고 있다.

「宋은 神宗이후 붕당으로 인해 국정이 문란해졌고 그 영향으로 學術이 크게 변했다. 訓詁的인 漢學을 버리고 思想自由의 理學으로 전환되었음이 그것이다. 周敦頤·邵雍이 그 기초를 확립했고, 程顥·朱熹 등이 더욱 발전시켜 이미 心性學을 강론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思考法을 따라 格物致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때문에 繪畵도 사상을 중시하고 傳寫함을 가벼이 했으며, 실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筆墨

27) ≪陸放翁全集≫(臺灣, 河洛圖書出版社)

의 취미를 살리는데 편중하였다. 따라서 花鳥, 人物, 山水畵는 모두 실제 형상을 묘사하는 기법을 도외시하고 情趣를 숭상했었는데 四君子는 드디어 그러한 시대적인 산물로 등장하게 되었다.」[28]

와 같은 내용을 보면 朱熹의 문학, 그 중에서도 四君子를 소재로 한 시가 지난날의 四君子詩에 비해서 어떠한 특색을 갖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理學 思想에 입각하여 情趣를 중요시하고 實在 形象을 묘사하는 기법을 가벼이 한 四君子詩」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날의 화가나 시인들은 事象의 순수한 존재를 관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 전달하려고 했음에 비하여 성리학자들은 性理哲學의 논리적인 관점에 事象을 끌어와 부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性善(大學에서는 明德이라 했음)을 영원히 지켜 나감 즉 道(인간의 올바른 길)를 닦고 가르치고 실천함이 성리학의 근본 이념인데, 이 이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군자라 했고, 그러한 군자를 상징할 수 있는 식물마저 군자라 불렀던 것이다.

宋代에 와서 梅·蘭·菊·竹 卽 四君子 詩畵가 크게 유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梅·蘭·菊·竹은 잠시라도 道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隱顯自若하는 군자의 자태를 풍기는 식물로서 추워도 춥다하지 않고, 더워도 덥다하지 않으며, 貧寒해도 궁색하지 아니한, 강인한 지조와 절개를 지켜 中和의 哲理를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사군자는 벗이요, 스승이요, 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29]

朱熹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념과 관점에 의해 사군자, 그 중에서도 매화를 즐겨 노래했던 것이다. 朱熹는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梅花兩絶句>[30], <和李伯玉用東坡韻賦梅花>(同上), <梅花開盡不及吟賞

28) 鄭昶, ≪中國繪畵全史≫ p.253~254.

29) ≪中庸≫ ;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顯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30) 朱熹, ≪晦庵先生朱公文集≫(臺灣, 中文出版社) 卷一.

感歎成詩聊貽同好二首>(同上 2), <梅堤>(同上 3) 외 30여수의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

「故山風雪深寒夜, 고향 산천 바람 눈 차가운 밤에,
只有梅花獨自香. 매화만이 홀로 피어 향기 풍기네.
此日無人問消息. 이날 어느 누구 소식물음 없었어도,
不應憔悴損年芳.」 초췌하여 고운 양자 손상하지 않았겠지.

<夜雨> (同上>

바람 눈 차가운 밤에도 홀로 피어 향기를 풍기는 매화는 性理의 道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 戒愼하고 恐懼하는 군자, 朱熹 자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가운 風雪夜를 참으며 홀로 향기를 잃지 않아야 함은 고통스러운 일이요, 남이 알아 주지도 아니하는 외로운 경지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무한한 희열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삶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알아 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31]를 실천궁행함이다. 때문에 <小梅>에서 朱熹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且喜梅花開, 梅花가 피는 것을 즐거워 하고,
莫且梅花小. 梅花가 적다고 말하지 마라.
花小風味深 꽃은 적으나 풍미 깊으니,
此意君已了.」[32] 이 뜻을 그대야 이미 알겠지.

꽃은 적으나 풍미가 깊으므로 꽃을 좋아함이 아니라 그 깊은 풍미를 즐겨 한 것이다. <和李伯玉用東坡韻賦梅>는 퇴계가 <東湖讀書堂梅花暮春始開>에서 東坡 原韻을 借用케 한 동기를 마련한 것 같고, 「廣平偏嫵媚, 鐵石悞心期.」[33],「仙人氷雪姿, 貞秀絶倫擬, 驛使詎知聞, 尋香問煙

31) ≪論語≫<學而>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32) 朱熹, 同上書 卷7.
33) 同上書 卷2, <宋丈示及紅梅臘梅借韻兩詩輯復和呈以發一笑>

水.」(<梅堤> 30)는 陸凱, 范曄의 驛梅故事와 宋璟의 <梅花賦>, 皮日休의 <桃花賦幷引>, 張九齡의 嶺梅와 接脉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감히 스스로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스승을 믿어야 하나니 주자는 내가 스승으로 삼는 분이고 천하고금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분」[34]이라고 한 퇴계였으니 주희의 매화시 역시 퇴계의 매화시와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⑵ 韓國人의 梅花詩文

한국문학사에도 일찍부터 <花王戒>와 같이 꽃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매화가 시문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중엽 이후부터이다. 그 현상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시대의 매화시

고려시대 문집중 매화시를 처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李奎報(1168~1241)의《東國李相國集》이다.

「庾嶺侵寒折凍脣, 유령에 추위 오자 언 입술 터지건만,
不將紅粉損天眞. 붉은 빛 지녔어도 天眞이야 덜을손가.
莫敎驚落羌兒笛 강아의 피리소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好待來隨驛使塵. 잘 기다려 驛使 따라 오게 해야지.
帶雪更粧千點雪, 눈속에서 천점 눈(꽃송이) 단장하오니,
先春偸作一番春. 봄앞에 가만히 또 한 봄을 이루었네.
玉肌尙有淸香在, 옥같은 꽃송이 맑은 향기 그윽하니,
竊藥姮娥月裏身.」 不死藥 훔쳐 먹던 항아인가 하노라.

<梅 花>[35]

과 <玉梅>[36]가 보이는데 「庾嶺」, 「羌兒笛」, 「驛使」 등은 다 중국의 낭

34)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十六, ≪答奇明彦書≫ : 「不敢自信而信其師, 則朱子吾所師也. 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
3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一.

만적인 梅花故事에서 취해 온 내용들이다. 이규보와 동시대의 陳澕도 「東君試手染群芳, 先點寒梅作淡粧.……正似淸溪看疏影, 只愁桃李未升堂.」<梅花>과[37] 같은 林逋風의 작품을 전하고 있으며, 李穡(1328~1396)·元天錫(1330~?)·韓脩(1333~1384) 등도 모두 매화에 관한 시문을 썼다. 그 중 李穡은 <雪梅軒小賦>≪牧隱集 卷1≫, <梅花三首>(卷 6), <詠梅花三首>(同上), <詠梅>(卷 7), <梅花三首>(卷 8), <憶梅花二首>(卷 8), <曲城府梅花躑躅三首>(卷 13), <注邑尋梅>(卷 16), <題嶺梅卷>(同上), <昨賞梅金判事宅三首>(卷 34) 등 상당수의 매화시를 그의 문집에 싣고 있다. 「暗香疎影入淸談」<梅花三首>, 「鐵腸誰知工作賦」<詠梅花 三首>는 林逋·皮日休 등의 風趣를 보여 주고 있으나 「雪也梅也吾師也」(雪梅軒小賦) 등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본 매화관이라 할 수 있다. 鄭夢周(1337~1392)도 「당시에 손수 심은 저 매화 나무야, 묻노니 봄바람에 몇 번이나 피었던고.」[38]와 같은 매화시를 남겼으며, 鄭道傳(?~1398)은 <詠梅> 五言絶句 13수와 <梅川賦> 1수[39]를 썼다. 그 중 「嶺外魂」, 「枯瘦」, 「氷霜」, 「氷雪」, 「玉魂」, 「西湖不見人」, 「挹群仙於上淸」 등은 宋璟·張九齡·林逋와 같은 사람들의 풍미를 보여 주며, 「渺天地兮窮陰.……欲誰何兮無言」은 蘇軾의 「日黑林間逢縞袂, 覇陵醉尉誤誰何[40]」句에서 換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 사이에 등장하여 매화의 貞固潔白한 정취를 理會體得코자 하는 가상의 인물 貞白子와 玉潔先生은 바로 성리학 정신에 침윤된 鄭道傳 자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冥會精與神」하여 자신의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을 확립하는 척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

36) 同上書 卷三.
37) 陳 ≪梅湖遺稿≫
38) ≪圃隱先生集≫ 卷二 <奇李獻納詹接行時金海燕子樓前手種梅花故云>
39) ≪三峰集≫ 卷一
40) ≪蘇東坡全集≫ 卷十八, <次韻楊公濟奉議梅花十首>

② 조선조의 매화시

조선조에 들어서자 매화의 미는 한층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의 梅花詩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成三問의 梅花詩文

成三問(1148~1456)은 성리학의 정신에 입각하여 매화와 竹의 정취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자 하여 자기의 아호를 梅竹軒이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梅竹軒賦>[41]에서 매화가 다른 식물에 비해 특별히 아름다운 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雅操] : 「惟梅兄之雅操兮, 與此君之勁節.」
[貞節] : 「旣貞節之不變兮, 亦孤芳之尙存.」
[淡泊] : 「謇淡泊之至美兮, 固不周於時俗.」
[淸白] : 「伏淸白以不易兮, 乃君子之所服.」

이 네 가지 만고불변한 정취의 총화야말로 率性君子가 이룩할 「中和」의 美를 啓示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几席間에 놓여진 梅盆을 바라보며 人世의 塵喧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생각하건대 梅의 稟性이 청결한 지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사랑할 만하고 향기로운 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공경할 만하다.」[42]

고 했던 것이다, 性理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敬」할 수 있는 대상은 「不變」·「不易」의 「至美」한 「貞操」와 「淸節」의 화신일 때 가능한 것이다. 梅竹軒은 梅竹이 가르쳐 준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의 道와 美를 愛敬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승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41) ≪梅竹軒集≫ 卷一.
42) 同上書 卷二 : <梅隱亭詩引> : 「余惟梅之爲物, 有淸操焉可愛也, 有馨德焉可敬也.」

이다. 그것을 愛敬하고 고수함이 바로 천하의 正道요 定理였기 때문이었다.[43] 매화의 美가 性學哲理와 일치되어 至高至善의 감동을 불러 일으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金時習의 梅花詩

金時習(1434~1493)도 雅號를 梅月堂이라 했음을 보면 梅의 풍미를 얼마나 좋아했던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梅雨>, <雪裏騎牛探梅>, <畵梅花>, <梅花>, <探梅>, <種梅>, <餠奉寺看梅>, <老梅> 등의 매화시를 남기고 있다.[44]

「香魂玉骨先春妍,　　香魂인양 玉骨인양 봄 앞서 고운 모습,
獨點孤山烟雨邊.　　孤山 烟雨邊에 너홀로 피었구나.
疎影暗香雖不動,　　疎影 暗香은 움직이지 아니해도,
淸姝風韻正依然.」　　맑고도 고운 풍운은 바르고 의연하네.

<畵梅>

에서는 宋璟·林逋의 梅花美를 계승했으며, 七絶 14首로 쓰여진 <探梅>에서도 전통적 매화관을 바탕으로 하여 매화의 생태와 품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大枝小枝雪千堆,　　큰 가지 적은 가지 눈 속에 덮였는데,
溫暖應知次第開.　　따듯한 기운 알아 차례대로 피어나네.
玉骨貞魂雖不語,　　玉骨貞魂이야 말을 하지 않지마는,
南條春意最先胚.」　　남쪽가지 봄뜻 알아 먼저 망울 맺는구나.

는 그러한 예다. 그 외에도 「半乾枯葉看春枝」, 「大枝蟠屈小枝糺」 등의 句가 奇巧하며 「我曾恰似放翁狂, 三十年來物我忘.」은 陸游와의 관계를

43) 程子 ≪中庸≫解 : 「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天下之正道, 庸子天下之定理」
44) ≪梅月堂全集≫(大東文化硏究所影印本)

자술함이다.

◎ 徐居正의 梅花詩

조선조에 들어와 퇴계이전 매화시를 제일 많이 남긴 인물은 徐居正(1420~1488)이다. 그는 <梅竹軒>[45]에서

「孤竹聖之淸, 외로운 대나무는 성인의 맑음이요,
梅也仙之骨. 매화는 그 또한 신선의 뼈로구나.
蕭灑伯仲間 소쇄함 어느 것 낫단 말 못하리니,
天地一淸白. 천지간 청백함 제일이로다.
貞虛以爲心, 곧고 빔으로 마음을 삼고,
馨香以爲德. 은은한 향기로 덕을 삼았네.
高人有雅致, 高人이 단아한 풍치 있어서,
獨乃愛之酷. 홀로 사랑하기 그지 없었네.
……
相對座之隅 곁에 두고 서로 대해 바라 보오면,
脩然兩不俗 나와 너 언제나 속되지 않고.
坐看一氣流, 앉아 보면 한 기운 흐르고 흘러,
泰宇浩大極, 우주간 넓고 크게 끝이 없다네.
高軒此中趣, 높은 난간 이중의 정취야말로,
只有天君識.」 다만 하늘이나 알아 주겠지.

와 같이 梅竹軒 成三問의 梅竹觀을 찬양했으며,

「梅是花中聖, 매화는 꽃중의 성인이지만,
無人識性情. 그 성정 알아 줄 이 누가 있으리.
氣鍾天地秀, 기운은 천지의 우수함 탔었고,
心與雪氷貞, 마음은 눈 얼음인양 곧을 뿐일세.
……
玉色程明道, 옥색은 程明道의 사람됨 같고,

45) ≪四佳詩集≫ 卷四

鐵腸宋廣平.　　쇠창자는 宋廣平 마음이라네.
不須求面貌,　　얼굴을 구해서 무엇하리요,
默已合神精.　　말없이 神과 精 하나가 되네.
……」

<畵梅二十韻奉敎製>

라고 하여 梅를 꽃중의 聖人의 지위에 올려 놓기도 했다.「梅花의 聲德은 高人과 같고, 쇠마음 돌간 얼음눈 몸이로세.…… 平生에 알아 줄 이 宋廣平(璟)이니, 야단스레 뒷날 사람 評해 무엇하리요.」[46]라고 한 것을 보면 宋璟의 <梅花賦>에 나타난 梅花觀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 같다. <梅底尋香>, <梅>, <金子固宅詠紅白梅五首> 등 다수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卞季良(1369~1430), 金宗直(1431~1492), 李荇(1478~1534) 등이 모두 매화시를 남기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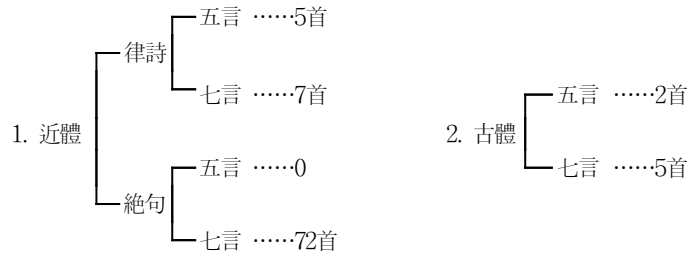
위에서 열거한 韓·中 매화시는 모두 퇴계매화시의 원류로서 면면히 이어져 왔고 퇴계는 그 원류를 이어 자신의 특유한 시세계를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Ⅲ. 退溪 ≪梅花詩帖≫에 쓰여진 漢詩形式

1) 近體律絶과 古體形式의 使用頻度

<梅花詩帖>은 62題目 91首의 매화시를 싣고 있다. 우선 그 형식을 五·七 近體, 古體別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6) 同上書 卷三十一, <畵梅> :「梅花馨德如高人, 鐵石心肝氷雪身.……平生知音宋廣平, 紛紛諸子何須評.」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상은 퇴계의 詩形運用에 대한 취향이다. 당시 문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기도 했겠지마는 퇴계는 고체시 보다 근체시를 즐겨 썼으며, 근체시 중에서도 五言보다 七言을 많이 썼고, 七言중에서는 律詩보다 絶句形式을 압도적으로 애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五言 絶句가 한 수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 押韻 現象

<梅花詩帖>에 실린 62題目의 작품에 차례대로 제목, 一連番號를 붙인 후 각 제목하에 쓰여진 韻字의 字數와 韻通을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押韻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아래 표에 쓰여진 숫자 중 화살표 앞의 것은 작품의 일련번호이며 화살표 뒤의 숫자는 韻字로 사용된 글자의 字數를 표시한 것이다.(※다음 장에서도 계속 이 일련번호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1) 近體詩의 押韻

五言
- 律詩 — 「16(작품의 一連番號, 以下同一)→4(押韻된 글자의 數, 以下同一)寒, 49→4 魚, 50→4 支, 55→4 眞, 61→4 東」……＊四字韻爲主
- 絶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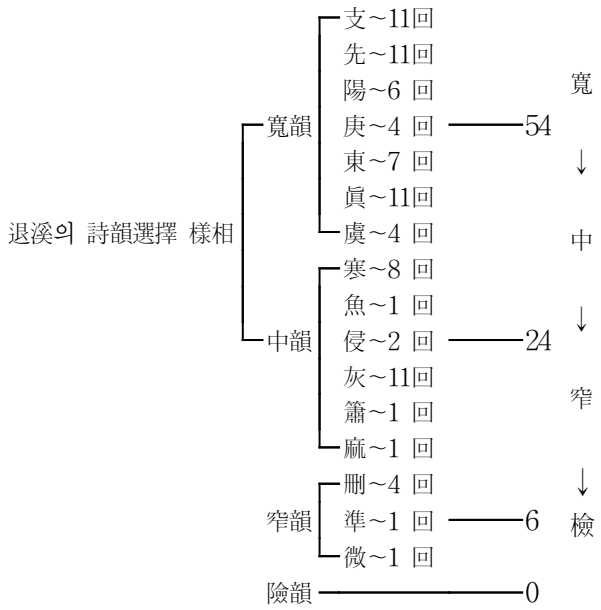
七言
- 律詩 — 「7→4 先. 15→5 陽. 23→5 灰. 25→5 灰. 29→5 東. 34→5 庚 ; 5 支」……※ 五字韻爲主
- 絶句 —
  「1→3 支. 3→3 灰. 4→3 灰. 5→3 支.
  6→3 先. 8→3 庚 ; 3 寒. 10→2 寒, 首句 刪 (隣藏)
  11→3 蕭. 12→3 眞. 13→3 準. 14→3 侵. 17→3 寒 ; 3 支.
  19→3 寒. 20→3 眞. 21→3 侵. 22→3 先. 24→3 庚.
  26→3 刪 ; 3 麻 ; 3 眞. 27→3 陽. 28→3 寒. 30→3 寒.
  31→3 刪. 32→3 先. 33→3 先 ; 3 眞 ; 3 先 ;
  3 先 ; 3 支 ; 3 先 ; 3 灰 ; 2 虞 首句 魚; 3 微. 38→2
  刪; 3 陽. 39→3 灰 ; 3 先. 40→3 陽. 41→3 陽. 42→3 支.
  43→3 支. 44→3 灰. 45→2 東 首句 冬(通韻)
  46→3 寒 ; 3 東 ; 3 眞 ; 3 眞 ; 3 陽 ; 3 東. 47→3 虞.
  48→3 支 ; 3 支 ; 3 灰. 51→2 庚 (二韻); 3 東.
  52→2 眞 ; 2 眞 (疊韻). 53→3 寒. 54→3 灰.
  56→3 灰 ; 3 灰 (疊韻), 57→3 眞 ; 3 眞 (疊韻).
  58→3 虞 : 3 虞 (疊韻). 60→3 先. 62→1 東 冬(通韻)」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퇴계는 오언율시에는 4字平聲韻을, 칠언율시에는 5字平聲韻을 다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으며, 칠언절구에는 38·45·51·52·62번 등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字平聲韻을 다는 것으로 규칙을 삼았다. 그러나 35番題下 第9와 45番 작품은 本韻이 2字로 쓰였으나 首句에 鄰韻을 달고 있기 때문에 音韻性質上 3字韻에 近似하므로 실제 예외는 38·51·62번 등이다. 그런데 62번은 2字韻을 사용하면서도 東·冬 兩韻을 운용하고 있으니 이런 것은 보기 드문 예의 하나다.

이와 같은 오언율시 4字韻, 칠언율시 5字韻, 칠언절구 首句用韻規則

의 유래를 王力은 漢詩 형성과정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오언율시는 隔句韻(二行마다 一韻을 담)을 단 <古詩十九首>형의 押韻法을 계승한 것이고, 칠언율시의 首句押韻은 每句마다 韻을 달았던 <栢梁臺詩> 형식의 압운법 殘影이라 추정함이 바로 그것이다.[47] 그럼 다음은 위에서 조사한 韻通들을 그 운용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다. 분류의 기준은 王力의 說에 따라 「寬韻·中韻·窄韻·險韻」순으로 배열해 보겠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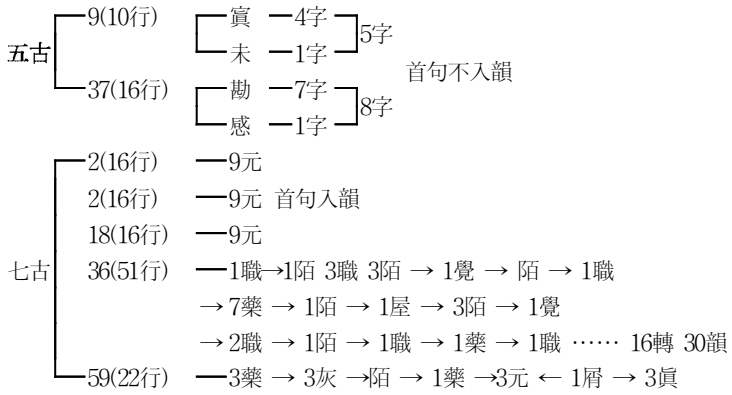
앞의 표 중 寬韻에 속하는 韻通들은 거기에 속한 글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선택하여 押韻하기가 가장 자유스러우며, 「中韻」·「窄韻」·「險韻」은 그 차례대로 글자 뜻이 어렵고 숫자가 작기 때문에 押韻의 구

47) 王力著, 洪瑀欽 編譯 ≪漢詩韻律論≫(嶺南大學出版部) <詩句의 字數>, <近體詩> 參照.
48) 위의 책 <近體詩의 用韻>

속을 점점 더 심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寬韻 54 → 中韻 24 → 窄韻 6 → 險韻 0」의 숫자는 퇴계의 詩韻 선택취향을 일목료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奇險함을 피하고 평이한 것을 추구하려는 단아한 성리학자로서의 詩作風度를 역력히 보여 주고 있는 증거로서 「矜豪放蕩」(긍호방탕)과 「褻慢戱押」(설만희압)을 배격하고 「溫柔敦厚」(온유돈후)를 숭상한 퇴계 문학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49]

⑵ 古體詩의 押韻



고체시는 근체시에 비해 엄격한 규율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韻字는 대체로 仄聲韻으로 하며, 一韻으로 일관하지 않고 換韻함을 常例로 삼는다. 2번과 18번에 쓰여진 韻은 原韻이 아니고 次韻이므로 작자자신이 임의로 변형시킬 수 없는 것이며, 平聲韻이 쓰였지마는 平仄이 맞지 아니하므로 排律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五言古詩는 五言律詩 押韻기준과 한 가지로 首句에 韻을 달지 않았으며 七言古詩는 首句에 韻을 달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체시와 근체시

49) ≪增補退溪全書≫ 五 (大東文化硏究院), <陶山十二曲跋>

압운규칙의 상관성을 알려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6·59번과 같은 작품의 用韻技法은 능숙한 고체시작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古體詩用韻에 있어서도 퇴계는 고체시 본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금도 戲押의 여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平仄 및 簾

근체시에 있어서 平仄規律은 절대불가결한 요건이다. 韻·字數·句數가 비록 近體律絶의 규격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平仄이 맞지 않으면 근체시라 할 수 없음이 바로 그 때문이다. 平仄이 격식에 맞으면 簾規則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平仄規律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꼭 지켜야 할 규율의 원칙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七言近體詩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每句「二·四·六」(五言은 二·四字)字의 평측규율이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원칙은「一·三·五」字(五言은 一·三字) 평측규율이다. 퇴계는 두 가지 원칙 위에서 평측규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예를 들어

「一樹庭梅雪滿枝, 風塵湖海夢差池.
玉堂坐對春宵月, 鴻雁聲中有所思.」

<玉堂憶梅> (一連番號1)

의 平仄譜를 만들어 보면

「①仄仄平平仄仄平, ②平平平仄仄平平.
③仄平仄仄平平仄, ④仄仄平平仄仄平.」

와 같다. ①, ②, ③, ④의 二·四·六자는 仄起式 近體絶句의 규율을 엄수하고 있으나 ②의 頭節 上字와 ③의 頂節 上字는 平仄 어느 자나 무방하다. ≪梅花詩帖≫에 쓰여진 퇴계의 近體律絶詩는 시종일관 그 정

해진 律格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簾도 다 正廉이다.

4) 對 仗

對仗은 近體律詩 頷·頸兩聯에서만 요구되는 형식이므로 古體詩와 近體絶句에서는 그에 대한 규칙적인 격식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없다. 위의 「近體詩의 押韻」표에서 알 수 있듯이 ≪梅花詩帖≫에 수록된 오언율시는 작품 일련번호 16·49·50·55·61 ; 칠언율시는 7·15·23·25·29·34(2首)등 모두 12首에 불과하다. 몇 작품의 頷·頸聯을 摘取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吾律對仗

16番 (答友人)

「松風關院聽, 솔바람 소리 書院門을 닫고 들으며,
梅雪擁爐看, 매화 눈발을 화로 끼고 바라 보네.
世味衰年別, 세상맛 늙으막에 특별도 하니,
人生末路難.」 사람 삶 끝맺음이 어려웁다네.

49番(詠梅)

「和曾三疊僭, 和答하니 일찍 陽關 三疊에 대해 참람하고,
栽尙百株疎. 栽培하니 오히려 百株의 성김일레라.
偶入小羌笛, 우연히 小羌의 피리에 얹으니,
偏宜高士廬.」 마침내 高士의 草廬에 적당하구나.

(2) 七律對仗

7番(幽居)

「置酒東軒如對聖, 東軒에 술을 두니 聖人을 대함 같고,
得梅南國似逢仙. 南國에 梅花보니 신선을 만남 같네.
巖泉滴硯雲生筆, 바윗샘에 벼루 씻으니 붓에 구름이 일고,
山月侵牀露灑編.」 산달빛 책상 머리에 비치니 책에 이슬 서리네.

15番(梅塢淸香)

「皎皎驚人氷雪白, 흰 색깔 사람을 놀라게 하니 氷雪 같은 梅의 꽃,
馥馨襲袂桶檀香. 짙은 냄새 소매에 스미어 드니 檀桶같은 梅의 향기.
孤山微吟占風情, 孤山의 微吟은 풍류정취 얻음이요,
草堂索笑開愁腸.」草堂의 삭막한 웃음은 수심마음 여노메라.

이상의 예를 통해 퇴계가 律詩를 지음에 있어서 對仗에 대해 얼마나 刻苦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6번의 「松 : 梅」, 「風 : 雪」 ; 7번의 「東 : 南」, 「筆 : 編」과 같이 草木花卉, 天文, 方位, 文具 등 각각 성격이 같은 부류의 품사끼리 대립시키려는 「工對」의 기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를 살리려면 기교에만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16번의 「年 : 路」 ; 49번의 「笛 : 廬」 ; 15번의 「人 : 袂」와 같이 분류 부문이 다른 명사끼리 대립시킨 「寬對」의 융통성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失對」로 詩의 體格을 허물어 뜨린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溫柔敦厚한 詩風이 對仗運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7번의 頸聯은 퇴계시의 극치를 보여 주는 절묘한 對仗이라 할 수 있다.[50]

이상 퇴계 <梅花詩帖>에 쓰여진 體式·押韻·平仄·對仗 등을 살펴보았다. 오언절구와 같은 極短形은 절대로 피했으며, 長形古體와 律詩를 비교적 드물게 쓰면서 칠언절구를 압도적 다수로 애용했음과 寬·中韻常用, 一三五不論, 二四六分明의 平仄遵守 및 寬對運用 등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방만하지 아니함으로 일관한 퇴계의 中庸的인 詩形運用의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퇴계 <梅花詩帖>의 梅花詩形에 나타난 風格은 半枯反生의 梅葉, 淸瘦한 梅幹, 索笑하는 매화처럼 「枯淡」하고 「典雅」한 면을 동시에 풍기고 있다고 하겠다.

50) 王力著 위의 책 第十四節 <對仗의 種類> 참조.

Ⅳ. ≪梅花詩帖≫에 나타난 退溪의 梅花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이전의 매화시들에 나타난 梅花美에 대한 관점과 퇴계 «梅花詩帖»에 표현된 매화관을 대조해 보면 퇴계가 前人들의 매화관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했음이 분명하다. 周詩(詩經詩)에서 매화의 眞美를 알지 못했음과 屈原이 <離騷>에서 많은 꽃들을 노래했으나 매화에 대해서는 暗昧했던 사실, 六朝代 梁의 何遜이 楊州의 매화에 도취되어 楊州再任을 요청함, 孟浩然이 江南의 매화를 吟詠함(訪袁拾遺不遇), 庾嶺上의 매화가 南枝北枝에 따라 開花時日이 다름 («白孔六帖»), 鐵腸石心으로 嫵媚한 <梅花賦>를 지었던 宋璟, 宋代 林逋의 <梅花>, 그외 여러 시인들의 매화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익히고 그것을 직접 시로서 읊었음은 퇴계가 前代 梅花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조예를 띠고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하겠다.[51] 前代人들의 매화에 대한 정취를 통해 매화의 생태와 품성의 미를 발견한 퇴계는 「내 평생 즐겨함이 많으나 梅만은 酷好한다.」[52] 「맑은 향기 酷愛하여 스스로 읊고 생각한다.」[53]라고 자술하고 있다. 성리학의 기본정신인 「不偏之謂中」에 입각해서 보면 「酷好」, 「酷愛」의 「酷」은 「偏」으로서 中을 지키지 못함이다. 그럼 성리학자인 퇴계가 무엇 때문에 인생의 척도인 「中」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梅를 酷好 酷愛했을까.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梅花詩帖≫에 나타난 여러가지 매화관을 몇 항목으로 간추려 그 酷好 酷愛했던 이유와 현상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1) 梅花의 色態

色態는 色彩와 姿態다. 대상의 색채와 자태는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51) ≪梅花詩帖≫ 36番 <用大成早春見梅韻>
52) 同上 : 「我生多癖酷好梅」
53) 同上 : 42番 <主答> : 「酷愛淸芬自詠思」

있는 미적체험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퇴계가 매화를 酷好 酷愛한 일차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玉貌婥約」<東湖讀書堂梅花春始開>(2番)
「玉盈盈」<題蔡居敬墨梅>(8)
「瓊枝疎瘦」<同上>
「雪英寒」<同上>
「皎皎, 氷雪白」<梅塢淸香>(15)
「玉人頩頰出天姿」<題梅花>(17)
「雪作團」<同上>
「一白可洗群芳昏」<節友社梅花暮春始開云云>(18)
「玉樹」<梅梢明月>(19)
「玉雪眞」<寓感>(26)
「愛他疏瘦與橫斜」<同上>
「玉仙」<季春辭召命還陶山梅花問答>
「玉雪枝」<丁卯踏靑日病起獨出陶山云云>(33)
「玉骨氷魂別樣春」<再訪陶山梅十絶 第二>(35)
「玉瘦瓊寒雪韻姿」<同上 第五>
「氷霜天下色」<用大成早春見梅云>(36)
「雪蕚」<同上>
「玉雪淸眞」<盆梅答>(40)
「綽約天葩玉雪姿」<次金彦遇愼仲梅花韻>(48)
「姑射出塵姿」<同上>
「飄玉恨空枝」<次韻愼仲不及賞梅>(50)
「窓間梅藥玉生春」<彦遇惇敍同訪愼仲盆梅韻>(52)
「春晩氷霜獨擅開」<庚午寒食云云>(56)
「氷肌雪色夢娟娟」<溪齋夜起對月詠梅>(60)
「氷雪容」<都下梅盆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載寄來熹題一絶云>(62)

이상 매화의 色態를 형용한 어휘들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첫째, 매화는 「玉」과 같다.

들째, 매화는 「氷雪」과 같은 容姿의 꽃이다.
셋째, 매화는 「疎瘦」·「橫斜」한 꽃이다.

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玉은 淸淨透明, 「氷雪」은 五色이 發하기 전의 潔白冷淡, 疏瘦橫斜는 貧寒困苦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가 매화의 색채와 자태를 통해 얻은 심상은 비록 貧寒困苦하면서도 淸淨透明하여 表裏不同하지 않고 潔白冷淡하여 五慾七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純善無惡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의 「中」과 發하면서도 中節한 상태의 「和」에 合一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대개 義理의 學은 精微로움의 極致이니 반드시 마음을 크게 가라 앉히고 안목을 높게 세워 절대로 어떤 一說로 主를 삼지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조용히 그 의미와 정취를 관찰하므로 同一한 가운데 나아가 그 다름을 알며, 다른 가운데 나아가 同一한 것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분리시켜 둘로 만드나 그것이 일찍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害하지 아니하고, 合하여 하나로 만들어도 그 實은 서로 混雜할 수 없음에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두루두루 다해서 편벽함이 없을 것이다.」[54]

와 같이 편벽함이 없는 義理學의 精致로움을 강론한 퇴계였던 만치 그는 어느 한가지 꽃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모든 꽃들의 의미와 정취를 관찰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玉과 같이 淸淨透明하고, 氷雪과 같이 潔白冷淡하며, 安貧樂道의 君子처럼 貧寒困苦함을 이겨내는 매화를 姑山(姑射山)에서 내려온 신선으로 보기도 하고 자신의 節友로 삼아 酷愛酷好도 했던 것이다.

54) ≪退溪全書≫ 卷十六, <答奇明彦書>

2) 梅花의 稟性

색채와 자태는 시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의 외형이라면 품성은 감각작용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내재한 품성은 色態란 인식매체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퇴계가 인식한 매화의 품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辭輦貞姬」<東湖讀書堂梅花暮春始開>(2)
「淸眞梅月」<孤山詠梅>(10)
「雪澗梅寒似隱眞」<林居早春>(12)
「苦節淸芬儘飽諳」<淨友社>(13)
「苦節重遭雨惡摧」<三月十三日至陶山梅被寒損甚>(25)
「節艶風流玉雪眞」<寓感>(26)
「眞强休詫鐵石堅」<再訪陶山梅十絶>(35)
「玉雪淸眞」<盆梅答>(41)
「婥約藐姑眞」<雪月中賞梅韻>(55)

위의 句들에서 매화의 稟性을 표현한 낱말 중 가장 중요한 것은「眞」「貞」,「堅」,「苦」 등이다.

「眞」은「玉」·「氷雪」과 같이 淸淨透明, 潔白冷淡한 매화의 色態에서 감지된 純善無惡함이며,「貞」·「堅」·「苦」는「窓外雪風吹動地, 窓間梅蘂玉生春」(52번),「雪虐風饕戰許條」(58번)에서 볼 수 있는 바, 風雪이 몰아치는 험악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피어나는 매화의 생리에서 체득한 美感이다. 따라서「眞」은「性卽理」를 바탕으로 한 仁義禮智의 性, 卽 本然之性(氣質之性이 아닌)의 미적 극치이며[55],「貞」·「堅」·「苦」는 그「眞」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지조를 의미한다. 純善無惡한 本然之性(≪大學≫의 明德)은 끝없는 氣質之性(善惡雜然한 性)의 위험과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그 本然之性(中)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곧고(貞) 강인(堅)한 不易(庸)의 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55) 同上

다. 本然之性(中)을 영원히 지탱(庸)함은 성리학이 추구하는 최고 이상이며 그 이상을 미적으로 具現 暗示하고 있는 품성의 식물이 바로 매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李穡은 「梅也吾師也」<雪梅軒小賦>, 鄭道傳은 「冥會精與神」<詠梅>, 成三問은 「愛·敬」<梅隱亭詩引>, 金宗直은 「從慈細玩生生理」<至日詠梅>, 「梅兄千古少知音」, 「梅是花中聖」이라고 토로했으며 퇴계는 「韻格淸癯」(49번)한 仙人으로 혹은 節友로 삼아 노래했던 것이다. 퇴계는 언제 어디서나 性理의 哲理를 암시하는 이 節友의 貞節을 사모하고 그것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王甦 교수의 「情者文之心, 有至情而後有至文. 退溪之愛梅花, 本於至誠, 發乎至情」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心期獨在山中梅」(59번) 마음은 언제나 山中의 梅와 더불어 사는데 있었으므로
「邇來京輦苦相憶」(2번)
「主人京洛遙相憶」(38번)

과 같이 멀리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서로 그리워도 하고

「溪夢夜夜探梅萼」(59번)

꿈속에 달려가 매화 송이를 어루만지기도 했으며,

「使我思不禁」(37번)

끝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幾度尋春走馬來」(3번)

말을 타고 달려와 직접 만나 보기도 하고,

「月下攀條傾一樽」(2번)

달아래 매화와 더불어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술두루미를 기울이기도 했던 것이다.

「眼明天地立孤樹, 一白可洗群芳魂」(18번)

매화를 대했을 때 哲理의 안목이 밝아지고, 매화가 피어남에 혼탁한 영혼을 정화시켜 仁義禮智(四端)의 純善無惡한 性(明德)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驛路折寄悲塵魂」(2번)

驛路에서 피어난 한 송이 매화를 꺾어 보내면서 紅塵俗世의 넋을 슬퍼했던 것이다.

여기서 퇴계가 매화를 애호했음이 얼마나 강열했으며 그 근본 저의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고 넘어 갈 사실은 성삼문과 퇴계의 매화미에 대한 표현의 차이다. 성삼문은 「勁節」, 「貞節之不變」, 「仗淸白以不易」<梅竹軒賦>과 같이 「貞節」에 「勁」·「不易」·「不變」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퇴계는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성삼문의 정절은 아직 生硬直切한 초기 性理精神을 바탕으로 한 정절이라 할 수 있다면 퇴계의 정절은 醇熟婉曲한 性理精神에 입각한 정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3) 梅花寒傷에 대한 退溪의 慨歎

이상 살펴 본 바에 의하면 ≪詩經≫에 나타난 매화는 단순한 천연 그대로의 매화이며, 唐代의 매화시인은 매화 그 자체의 미적인 진실성을

구현하는 데 치중해 있었으며, 宋代 이후 퇴계에 이르기까지의 매화시문은 唐代에 구현된 매화미의 특성을 人生哲理와 결부시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숭고한 철리를 암시하고 있는 매화가 寒風冷雪의 傷寒을 입어 그 本然之性(純善無惡한 眞)을 잃었을 때의 원통함을 주제로 한 시가 퇴계이전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퇴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매화의 傷寒苦痛에 대해 매화를 대신해서 원통해 해주고 개탄해 주는 매화시가 쓰여졌던 것 같다.

「雪虐風饕戰許條, 눈의 포악 바람탐욕 여러 가지(枝) 위협하여,
摧傷烈氣更貞孤. 摧傷 매운 기운 더욱 곧고 외로우네.
君廚俊及雖凋謝, 陶山八梅(君廚俊及)야 상하고 꺾어져도,
樹屋煙爐詎盡無.」 그 중의 한 그루야 어찌 남지 않을손가.
<余贈彦遇詩~用彦遇韻以自遣且以示彦遇>(58번)

는 純善無惡의 淸眞한 梅를 摧傷케 하는 雪虐風饕를 罵倒하고 그럴수록 거기에 대해 더욱 貞孤하게 저항하는 陶山梅의 强忍不節한 稟節을 노래한 것이며

「有客同心期不來, 마음 함께 할 손님 기다려도 오지 않아,
孤笻延佇白雲堆. 홀로 지팡이 짚고 白雲속에 서 있었네.
重嗟宿契三梅樹, 아아! 宿緣으로 맺어진 세그루 매화,
只向殘春數萼開. 다만 늦봄엘사 두어송이 피었구나.
入手淸風空灑落, 손에 드는 맑은 바람 공연히 쇠락한데,
傍簷明月自徘徊. 처마끝 밝은 달은 제홀로 배회하네.
明年此事知諧未, 명년에도 이러한 일 또 있을손가,
愁思吟邊浩莫裁.」 수심을 읊조리는 마음 가눌 길 없네.
<陶山訪梅緣被去冬寒甚 蘂傷殘芳晩發憔悴可憐爲之歎息賦此.>[56]

56) 同上書 卷三.

는 제목속에서 밝혀 주고 있듯이 陶山梅가 寒害를 입어 꽃망울이 다 말라 버리고 그 중 몇 송이가 가냘프게 피어난 것을 보고 가련케 여겨 탄식하며 지은 시다. 여기서 마음을 함께 할 同志는 淸眞하며 純善無惡한 仁義禮智의 덕을 갖춘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그러한 동지가 와 주기만 하면 저 高古한 陶山梅와 더불어 끝없는 淸眞의 세계를 담론하고 純善無惡한 悅樂의 心境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지는 나타나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宿緣으로 맺어진 세 그루의 陶山梅마저 거의 얼어 죽고 몇 가지만 남아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퇴계는 가상의 동지가 나타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존재하는 結社의 同志(陶山梅)마저 風雪의 탄압으로 말라 죽고 있는 이 외로운 상황을 통감했던 것이다. 백설속에서 멍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손으로 맑은 공기를 움켜잡기도 하며, 외롭고 참담한 심회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어찌할 수 없는 것, 다만 미래에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었다.

「與君賞梅會有諾,	그대 함께 매화감상 일찍이 허락터니,
及到梅香我負約.	매화 피자 내먼저 약속을 어기었네.
心期獨在山中梅,	마음은 언제나 산속 매화 기약하여,
溪夢夜夜探梅蓼.	퇴계꿈 밤마다 매화송이 더듬었네.
昨日梅社共君來,	어젤사 梅花社에 그대함께 왔었더니,
梅興索寞令人哀.	매화흥취 삭막하여 나의 슬픔 빚어내네.
八梅風烟但空枝,	八梅는 바람 연기 빈 가지 뿐이온데,
一枝數蓼猶未開.	한 가지에 두어 송이 아직도 필락말락.
杖藜吟梅遶百匝 ,	청려장 의지하여 매화 읊으며 소요하노니,
冥頊胡爲我梅厄.	전욱(顓頊)[57]은 어찌하여 나의 매화 죽였는고!
不比君家梅得暖,	그대 집 매화는 따뜻함 얻었지만,
梅社風多寒更虐.	梅社梅는 바람 많아 춥고도 학대받네.

57) 「冥頊」은 中國上古王顓頊을 뜻하는 듯. 顓頊은 皇帝의 孫, 昌意의 아들 高陽氏, 「顓頊」은 「能專正天人之道」의 뜻이 있음 (≪中文多辭典≫ 參考)

我欲牋天餙梅寃,	하나님께 편지띄워 매화원통 호소하고,
我欲作辭招梅魂.	글을 지어 매화 영혼 부르고 싶네.
梅寃悄結天所憐,	매화원통 근심맺힘 하늘도 불쌍히 여기는 바,
梅魂歸來我所溫.	매화영혼 돌아오면 나의 마음 따뜻하리.
向來桃李妬梅白,	지난날 挑李花는 매화흰색 질투하여,
奢華競笑梅孤潔.	사치 호화 다투어 매화고결 비웃었네.
但使吾梅本根在,	다만당 나의 매화 둥치뿌리 남게 하면,
一閎英華梅豈缺.	그윽한 영화로움 매화 어찌 缺할손가.
何況一梅之發可動人,	하물며 매화핌에 사람 감동 시키오니,
梅乎肯與千紅百紫爭一春,	매화 어찌 온갖 꽃과 한 봄을 다툴손가.
我願朝朝走訪一梅君,	나는 매일 달려가 梅君을 방문하노니,
西京之末只有吳門梅子眞.」	西京끝엔 다만당 오문 매자진만 있네.

<陶山梅爲冬寒所傷歎贈金彦遇兼示愼仲惇敍>(59번)

에 이르면 퇴계의 梅花傷寒에 대한 개탄과 항변은 그 절정에 이른다. 퇴계는 자신이 심은 여덟 그루의 매화를 꿈에도 잊지 못해 세상 만사를 그만 두고 오로지 매화를 보려 온 것이다. 그러나 매화는 凍害를 입어 거의 얼어 죽고 한 가지에 두어 송이마저 필동말동 하였다.

그는 그 삭막한 상황에 대해 슬픔을 금치 못하여 靑藜杖을 짚고 매화 주변을 이리 저리 거닐었다. 마침내 그는 天人의 道理를 專正한다는 顓頊을 향해 왜 나의 純善無惡하고 淸眞潔白한 매화를 죽였느냐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편지를 띄워 매화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문장을 지어 죽은 매화의 영혼을 부르기도 했다. 매화의 원통함은 하늘도 가련히 여겨 줄 것으로 믿었고, 또 매화의 영혼이 돌아 와 주어야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야말로 溫柔하면서도 敦厚하고 적극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매화 주위를 둘러 싸고 매화의 결백함을 질투하고 비웃던 桃李花의 사치 호화로움을 질책하면서 다시 매화를 향해 비록 가지는 얼어 죽었더라도 둥치와 뿌리만은 살아 남아 주기를 빌었다. 둥치와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 淸眞潔白, 純善無惡한 梅花의 本然之性 즉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雜草木의 花卉와 더불어 봄을 다투지 않고 毅然自若한 한 송이의 매화를 상상하며 앞으로는 매일 매화를 방문하여 매화와 떨어져 살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王莽의 非理와 橫暴에 아부하지 않고 吳의 市場에서 숨어 살다가 죽은 梅子眞이란 志士와 같이 「天命之爲性, 率性之爲道, 修道之爲敎」≪中庸≫를 삶의 바탕으로 삼은 퇴계의 인생관과 자연관이 역력히 표현되어 있다.

本然之性을 따른 즉 道는 잠시도 이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道를 발견하고 道를 따르고 道를 닦고 道에서 살겠다는 퇴계의 열렬한 이상이 바로 이 매화시들에 응축되어 있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거나 배우고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매화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저항하고 보위하여 끝내 매화와 자아가 하나가 되겠다는 염원은 퇴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매화관이다.

퇴계는 인간의 本然之性 즉 仁義禮智를 상징하는 매화의 淸眞潔白함을 酷好酷愛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V. 結　言

이상 매화의 생태와 퇴계이전의 매화시를 조사한 다음 퇴계 ≪梅花詩帖≫에 수록된 62題 91首의 매화시의 형식을 분석하고 끝으로 ≪梅花詩帖≫에 나타난 퇴계의 매화관을 탐색해 보았다. 그 요지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매화 나무의 본질은 강직하나 野生梅의 잎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半生半枯의 상태로 지낸다. 꽃은 눈속에서 피고 희나 花梗이 없어 앙증스럽고 古拙해 보이지만 淸新하며 芳香이 짙다. 白梅와 紅梅가 있으나 시에는 주로 白梅가 등장한다. 白梅는 어느 한 면도 富贍潤澤하거나 濃纖華麗하지 않다. 그러나 그 古拙淸新하고 素樸端雅하며 忍苦守節하는

생태가 「中和」사상을 바탕으로 한 儒家 士大夫들에게 至純至善한 아름다움으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志操와 性情을 存養省察하는 표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매화는 고대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했으며 중국은 국화로 삼고 있다.

2. 퇴계 매화시의 연원은 한·중 양국 문학사에서 두루 찾을 수 있다. 퇴계가 수용했던 중국의 매화시는 ≪詩經≫의 <標有梅>에서부터 唐代 宋璟의 <梅花賦>, 皮日休의 <桃花賦>, 張九齡의 大庾嶺梅, 宋代 林逋·蘇軾·陸游·楊萬里·朱熹 등의 詠梅詩들이었다. 그 중 <摽有梅>의 梅는 수식되지 아니한 천연 그대로의 소박한 梅이며, 宋璟의 <梅花賦>는 매화의 색채와 자태와 품성의 미를 처음으로 구현한 것이다. 北宋의 매화시는 唐代에서 구현된 梅花美를 재음미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南宋에 내려오자 매화의 미는 中和를 골격으로 하는 性理哲學의 사상과 결부되어 한층 더 심화되기 시작했다. 매화가 군자로 인격화되어 士大夫文人墨客들의 벗이 되고 스승으로 모셔짐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문학사에서 매화가 시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중엽부터이며, 그것을 문예의 아름다운 소재로 채택한 동기는 중국문학을 수용함에 있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李奎報의 梅花詩인데 李奎報의 梅花詩는 唐代 梅花詩風에 젖어 있었던 것 같으며 그 뒤 李穡·元天錫·韓脩·鄭夢周·鄭道傳 등은 南宋時代의 風格을 가미한 매화시를 吟詠했다. 특히 「貞潔」美를 부각시키고자 한 정도전의 매화시는 그러하다. 조선조에 들어오자 매화의 미는 한층 더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梅竹으로 자신의 영상을 삼고자 한 梅竹軒 成三問과 梅月堂 金時習을 위시해서 徐居正, 金宗直, 李荇 등의 梅花觀이 모두 그러하다. 성삼문은 <梅竹軒賦>에서 매화의 「雅操」·「貞節」·「淡泊」·「淸白」美를 「愛敬」한다고 술회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실천했던 것이며, 김시습은 陸游風의 狂放한 梅花詩風에 젖어 세월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서거정은 매화시에 대한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매화를 깊이 관찰한 결과 많은 예술적인 매화시를 남겼음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매화시

는 퇴계 매화시의 직접 간접적인 연원이 되어 왔다.

3. ≪梅花詩帖≫에 채록된 작품들의 體式은 간결한 칠언절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칠언율시에는 5字平聲韻, 오언율시에는 四字平聲韻, 칠언절구에는 三字平聲韻을 다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으며 古體詩는 古體詩 특유의 仄聲押韻, 換韻, 轉韻 등의 押韻法을 준수하고 있다. 押韻의 난이도에 따라 조사해 보면 「寬韻→中韻→窄韻→險韻」순으로 寬韻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中韻이 그 다음이며 窄韻은 극히 적고 險韻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平仄은 「一三五不論」「二四六分明」의 기준을 따랐으므로 삼엄하지는 아니하며, 對仗은 「工對」와 「寬對」을 竝用하여 여유를 보이면서도 失對로 골격을 흐트리지는 아니했다. 따라서 퇴계 詩形運用의 風格은 枯淡하고 典雅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겠다.

4. 퇴계는 前代의 梅花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독창적인 자신의 매화관을 확립하고 그 美境을 시로써 표현했던 것이다. 그 첫째는, 色態에 대한 견해다. 퇴계는 매화를 「玉」과 「氷雪」로 비유하며 「疏瘦」한 자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玉은 淸淨透明, 氷雪은 潔白冷淡, 疏瘦는 貧寒困苦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의 「中」과 發하면서도 中節한 「和」의 尺度에 합일될 수 있는 매화본연의 色態이다. 그리고 이러한 色態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지된 것은 매화의 품성에 대한 관념이다. 퇴계는 매화의 품성을 「眞」·「貞」·「堅」·「苦」한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眞」은 「玉」·「氷雪」등의 色態를 통해 감지된 純善無惡한 매화의 本然之性이며, 「貞」·「堅」·「苦」는 그 본연지성인 「眞」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지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잇다. 純善無惡한 본연지성을 영원히 지켜나감은 성리학의 최고 이상이며, 그 이상을 具顯啓示하고 있는 식물이 바로 매화이므로 퇴계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매화를 사모하고 함께 살며 그것과 일치할 것을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眞」의 精靈인 매화가 때로는 冷寒한 風雪에 의해 凍死의 厄運을 당할 때가 있다. 前代 매화시인들은 매화를 좋아하면서도 매화의 凍死를 슬퍼하고 개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퇴계는 매화의 凍死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매화를 죽게 한 風雪을 꾸짖기도 하고 개탄하기도 하며 죽은 매화옆을 이리저리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끝내 하늘을 향해 매화의 원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글을 지어 죽은 매화의 영혼을 부르기도 했다. 하늘이 매화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매화의 영혼이 돌아와야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퇴계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화를 둘러싸고 매화의 결백함을 질투하고 비웃던 桃李花를 질책하기도 했다. 여기서의 매화는 結社의 節友요 同志였다. 純善無惡한 結社의 동지가 非理와 橫暴의 탄압으로 困厄에 처해 있을 때 퇴계는 그 동지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분개하고 감연히 저항했던 것이다. 眞理의 道를 잠시도 떠날 수 없는 率性君子의 정신이요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前代의 韓·中문학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퇴계만의 매화관이다. 퇴계의 철학, 인생관, 자연관의 精彩로운 단면이 이 ≪梅花詩帖≫에 응결되어 있다. ≪梅花詩帖≫에 쓰여진 詩形은 「枯淡典雅」하고 내용은 「溫柔敦厚」하다. 퇴계의 매화시가 후대에 끼친 영향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다.